

35장. 안식일 규례와 자원하여 드림

35-40장은 25-31장의 내용과 비슷하다. 25-31장에서는 성막을 짓는 규례를 알려 주었고, 35-40장에서는 어떻게 세우는지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성막에 관한 규례가 복잡한데 그것을 두 차례나 기록하여 주셨다. 이것은 중요하니까 두 번 반복하여 읽으라는 뜻이다. 성막에 관한 설계도와 시행도를 배움으로써 그들은 성막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막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에 관하여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성막을 짓는 일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으로 마치는데, 그러한 영광의 자리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려고 이 규례를 두 차례나 기록하여 주시는 것이다.

1. 안식일 규례 (35:1-3)

성막을 짓는 규정은 안식일에 관한 규례로 마쳤는데(31:12-17) 성막을 짓는 규례는 안식일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성막과 안식일의 예배가 밀접히 연결되었음을 시사한다.

안식일의 규례로 일하지 말라고 하였고 불을 피우는 것을 그 예로 들었다. 여기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요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만나도 안식일 전날에 두 배를 두셔서 거두게 하신 것처럼, 주일에는 요리와 같은 일상적인 일도 그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만 집중하게 하였다.

요리와 같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인데,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을 이야기한 데에서 우리는 크신 사랑을 볼 수 있다. 안식일의 복은 성전에서 일하는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위한 것이다. 부자나 가난한 자가 모두 안식으로 초청을 받는다. 이러한 초청은 또한 의무적인 면도 있다. 교우들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성막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2. 자원하여 드릴 것들 (35:4-29)

자원하여 여호와께 드릴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는데 5-9절에서는 성막과 거룩한 옷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였다. 10-19절에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성막을 짓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였다.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고 또한 노동으로도 참여하였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들이 자원하여 드린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목록을 다시 열거한다. 그들은 자기의 소유에서 드렸고 없는 것을 드리지 않았다(참조, 고후 9:7). 또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렸다. 여인도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 슬기로운 마음으로 실을 뽑거나 베를 짜는 일을 하면서 참여하였다(35:25-26). 족장들은 더 많은 예물을 드렸다(35:27-28).

3. 성막의 일꾼들 (35:30-35)

성막을 짓는 일은 피라미드를 짓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작은 규모의 일이지만, 그 중요성에

서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이다. 성막을 세우는 일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는 말을 일곱 번 반복함으로써 그 일이 천지 창조와 비견할 만한 것임을 보여 주셨다. 하나님의 성신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여호와와 신이 브살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였다. 또한 오홀리압에게도 감동시켜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여러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

성막을 짓는 일은 신성한 일이지만, 금을 가공하거나 휘장을 짜는 것과 같이 일상적인 것이었다. 노예로 있으면서도 금은 세공을 하기도 하고 베를 짜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셨다.

목상과 실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

성막을 짓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보석이나 금은이 필요하였는데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것들이었다. 그들이 출애굽 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금은 패물을 받고 나왔는데(12:33-35) 극것을 즐거이 드렸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역시 자발적으로 많이 드린 것을 생각하면 드리는 것 자체보다도 더 생각할 점이 있을 것이다.

출애굽기에서는 성막과 관련하여 백성이 자원하여 드린 점을 중요하게 말한다. 재물뿐 아니라 자기의 노동력도 주님께 드렸다. 이러한 것은 우상에게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많이 드리는 것과 크게 다른 일이다.

사도행전에서도 교회에 드린 헌상이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결과임을 강조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의 일을 이룬 사실을 전파하고 성신께서 그 말씀을 들어서 쓰셨을 때에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애착심을 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다.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이러한 헌상은 복음의 능력의 결과이고, 복음의 능력을 증시하는 일이다.

35장 익힌 문제

1. 성막을 세우는 규제는 무엇에 대한 말씀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1-3절)
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엄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 무엇조차 금하셨습니까? (3절)
3.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을 바치도록 하셨는데 어떤 자들의 것을 받으셨습니까? (5절)
4. 모세는 성막과 기구와 제사장의 예복을 어떤 사람이 만들도록 하였습니까? (10절)
5. 성막을 지을 때에 손수 실을 넣고 그 넣은 청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을 가져온 자들은 누구입니까? (25절)
6. 호나노와 에봇과 흉패에 물결 보석과 등불과 관유와 향에 소용되는 물품을 가져온 자들은 누구

입니까? (27점)

7. 성소에서 쓸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한 사람들은 어느 지파의 누구입니까? (30-35점)